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3. 10. 29.(일)

철도 AI CCTV에 '이상행동 감지'기능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.

< 보도 내용 (뉴스1, 10.28) >

- AI CCTV 구축 용역 최종보고서(지능형 철도 방법 영상분석 플랫폼 구축 최종보고서)는 '이상행동 분석'이 이용객이 많은 철도환경에 부적합하고, 인적이 다소 드문 지자체 환경에 더 적합하다고 결론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국가철도 치안용 AI CCTV에 폭행 등 이상행동 감지 기능을 올해 안으로 시범도입하고, '24년에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.

- '23년 12월에 처음으로 도입(49개역, 700개)되는 AI CCTV의 주된 기능은 실시간 객체 인식(성별, 의상 등)을 통해 범죄 용의자 영상검색 시간을 1/60* 줄이기 위한 것으로 범죄 용의자 검거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.

* 서울역, 대전역에서 AI CCTV 카메라로 테스트 요원(남 5명/여 4명, 가발/선글래스/모자 착용/달리는 상황 등)실험 결과 객체 인식률 100% 달성('23.7월)

□ '지능형 철도 방법 영상분석 플랫폼 구축 최종보고서'에 지적된 바와 같이 철도 역사 내에서 폭행 등 이상행동을 정확하게 감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AI 학습이 필요합니다.

- 국토교통부에서는 영상, 사진 등 빅 데이터를 통해 AI CCTV 소프트웨어의 학습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관	책임자	과 장	조성균 (044-201-4600)
	철도안전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김길 호 (044-201-4545)